한·미, 北에 대화 손길… 대치국면 숨통 트일까

양국 대화 조건 온도차… 北 "교활한 술책" 비난속 태도변화 주목

북한의 잇단 위협 속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에 이어 한미외교장관도 12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미국은 비록 북한의 기존 합의 준수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긴 했지만,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지 간에 형식에 상관없는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내비쳐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무모한 행동과 위협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도 "우리의 희망은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외교장관의 이런 대화 손짓은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압박에서 대화로 이동하는 듯한 최근의 움직임과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있고 한국은 대화를 제의하는 이런 움직임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 시점에 양국이 대화 손짓을 취한 배경에는 북한이 준비중인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감행되면 대화를 제의할 시점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다음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제재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 제의를 하려면 지금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대화의 조건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반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선(先) 태도 변화를 사실상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없이 할 수 있다"(윤 장관)와 "비핵화를 포용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케리 장관)로 입장차를 엿보였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차원의 한국의 정책 결정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미 양국이 내민 대화 손길에 대해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남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14일 '교활한 술책'이라며 비난했지만, "앞으로 대화가 이뤄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해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함께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화 제의를 진전시킬지도 한반도 정세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비무장지대 산불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14일 오후 통일전망대 앞 동해선 육로 부근까지 번지고 있다. 13일 오전 4시40분께 발생한 이번 산불은 밤새 소강상태에 들어가며 14일 오전 소멸되는 듯했으나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씨 일부가 되살아나 산림청 헬기 3대가 긴급 투입돼 남방한계선 일대에 물을 뿌리는 살수작업을 펼쳤다. /연합뉴스

영광 2호기 증기발생기 결함 심각

민간 감시위 "관막음 비율 5% 육박 가동중지 수준"

원전측, 73일만에 재가동

영광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에서 결함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광원전 민간 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원전감시위원회)가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70여일간 제20차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영광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한 결과, 1.9㎝ 두께의 세관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268개를 추가로 관막음했다.

관막음은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세관에 균열 혹은 균열 조심이 보일 때 관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열린 원전감시위원회의에서 공개됐다. 19차 계획예방정비까지는 모두 203개의 세관이 관막음됐다.

만약 세관에 균열이 생기면 외부공기와 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영광원전 2호기엔 3개(A·B·C)의 증기발생기에 각각 5626개의 세관이 연결돼 있다.

증기발생기 A는 기존 89개에서 181개가 추가돼 모두 270개의 세관이 관막음(관막음율 4.79%)됐다. 증기발생기 B는 2.57%(76개→151개), 증기발생기 C는 0.88%(38개→50개)로 각각 관막음율이 늘었다.

원전감시위원회는 영광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A의 관막음율이 4.79%에 달한 만큼 증기발생기 A를 교체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규정상 관막음율이 5% 이상일 땐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도록 돼 있다.

현재 영광원전 2호기 세관 재질은 인코넬 600으로 열과 고압에 취약하다. 영광원전 2호기와 같은 재질을 사용하던 울진원전 1·2호기 증기발생기는 2011년과 지난해 각각 교체됐다. 당시 관막음율은 4.05%·3.14%였다.

이에 대해 영광원전 관계자는 "울진원전 4호기 불량 의혹 등으로 관판을 전수조사하면서 작은 이상이 있는 세관도 관막음 조치해 관막음률이 증가했지만, 법적 기준치보다는 낮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는 영광원전 2호기가 73일 동안의 정비를 마치고 14일 오후 5시 53분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광주 기독교 목회자들, 평화기원 릴레이 기도회

광주지역 기독교 목회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연다.

13일 '전쟁위기 해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따르면 광주NC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CBS는 최근 회의를 열고 앞으로 3주간 매주 화요일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16일 광주YWCA, 23일 광주YMCA, 30일 광주CBS가 각각 기도회를 주최한다.

22일에는 담양 주산교회에서 광주동노회 남북한 선교위원회 주최로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초청 강연도 열린다. 비상시국회의의 한 관계자는 "남과 북, 미국은 상대를 자극하거나 위협하는 말,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목회자들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北 '3·20해킹' 부인… "고의적 도발" 주장

북한은 지난 12일 '3·20 해킹'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3·20 해킹공격사건의 북 소행설은 천안호 침몰사건의 재판으로, 미국의 핵전쟁 소동에 편승해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한 계선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북남관계의 전시상황에 맞게 제기되는 모든 것을 전시법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북소행설을 조작해낸 자들은 재판 없는 사형으로 저지른 죄과를 청산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해킹에 북한의 내부 인터넷프로토콜(IP)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경이 따로 없는 인터넷에 남의 아이피 주소를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해킹에 이용하는 것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 해커들이 쓰는 일반적인 수법"이라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3·20사이버테러에 사용한 IP 주소가 등록된 지리적 주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 보통강구역 류경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또 해킹공격에 이용된 경유지가 과거 이용된 공격 경유지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몇 년 동안 같은 경유지를 이용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이를 빗대어 북 소행으로 판단하는 것은 괴뢰들만이 내놓을 수 있는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J프로젝트 땅값이 발목 잡나

"공익 관점 개발이익 배제" 부처간 이견 개정안 난항 예고

기업도시 개발 과정에 간척지를 더욱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8일 주승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22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과 같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양수할 때 토지가격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간척지 땅값을 정할 때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줘 투자를 늘리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 땅값 산정 문제로 수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J프로젝트 삼호지구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부 등 정부 부처의 입장이 달라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농림부는 '개발이익 배제'는 공감하면서도 J프로젝트 등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소급 적용은 반대하고, 해수부는 매립 총사업비를 간척지 양수금액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토부와 J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 등과 연계해 정부 등을 상대로 법안 처리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262만평)에 골프장, 대규모 스포츠·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삼호지구는 간척지 땅값 산정 문제로 간척지 주인인 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사 간 땅값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제값을 받고 팔려는 측과 저렴하게 구입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측의 입장차가 커 재감정 절차를 받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YS, 폐렴 악화 중환자실 치료중

김영삼(86·YS) 전 대통령이 13일 감기 증세에 따른 폐렴 악화로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가벼운 감기로 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태가 예상보다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가벼운 감기여서) 우리도 곧 퇴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폐렴으로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소장은 "다행히 오늘은 많이 호전됐다"면서 "다음 주에는 일반 병실로 옮기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과 7월에도 감기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연합뉴스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잡종지
● 입지조건:대형차량진입 가
● 허용용도: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리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 지
4,900㎡(1,485평)
건 물
295㎡(90평)
캐나다산 원목가공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6억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대로변 코너 소형 상가건물
주월동 상가 대지141㎡ 건물135㎡ 풍암지구 입구 35m대로변 코너 주차편리 매2억6천만원 (카센타 전시장 미용실등 다용도적합)
공장. 창고 부지
나주시 송촌동 동신대 인근 2차선 도로 접 자연녹지 전 16,200㎡(4,900평) 매가 3.3㎡당 20만원 (공장, 창고,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 룸
교 환
두암동4층 원룸
대 지 324㎡
건 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융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뷔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